

주보

2024. 12. 15.

위임목사 **이영훈**
(Senior Pastor Rev. Younghoon Lee)
부 목 사 **양승호**(목회) **백근배**(교무) **고영용**(개척)

◆ 2024 표어 ◆

오직 은혜로

◆ 2024 교회목표 ◆

1.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2. 말씀과 감사로 열매 맺는 교회
3.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향하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주 일 에 배 순

Sunday Worship Service

예배로 부르심 Invocation	요(John) 4:24	사회자 Presider
찬송 Hymn	8장(통9장) 4절 Hymn No. 8 v. 4	다같이(일어서서) All Together(Please Stand)
신앙고백 Confession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다같이(일어서서) All Together(Please Stand)
찬송 Hymn	1부: 86장, 2·3·4·5부·저녁예배: 32장 (통86장) (통48장)	다같이 All Together
기도 Prayer		기도자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사회자 Presider

1부 살전(1Thess.) 5:16~18

2·3·4·5부·저녁예배 사(Isa.) 11:1~2

찬양 Anthem		찬양대 Choir
설교 Sermon		설교자 Preacher
1부 제발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Please Don't Say It's Okay		양승호 목사 Rev. Seungho Yang
2·3·4·5부 저녁예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Ⅲ) Jesus Who Came to Us(Ⅲ)		이영훈 목사 Rev. Younghoon Lee
기도와 결신 Prayer & Altar-Call		설교자 Preacher
헌금기도 Offering		기도자 Prayer
찬송 Hymn	주기도문(635장) The Lord's Prayer	다같이(일어서서) All Together(Please Stand)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Preacher

2024. 12. 18.

수요일예배

Wednesday Worship Service

사회 / 1부 10시 10분 이상영 목사 2부 13시 40분 신환섭 목사 3부 19시 25분 예배로 부르심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1:2부: 499장(통277장) 다같이 기도 1부: 민영목 장로 2부: 문성기 장로 성경봉독 1:2부: 마(Matt.) 28:18~20, 3부: 마(Matt.) 9:9~12 사회자 찬양 1부: 베데스다 찬양대 2부: 시온 찬양대 3부: 호산나 찬양대 설교 예수님의 절대지상 명령 1부: 이영훈 목사 2부: (스크린) 예수님의 관심 3부: 신동석 목사 헌금기도 1부: 김효빈 안수집사 2부: 조남근 안수집사

오늘의 말씀

“이세의 즐거이에서 한 짝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이하졸임)
(사 11:1~2)

사회

1부 06:40 안현주 목사
2부 08:40 이성광 목사
3부 10:40 김형건 목사
4부 12:35 신동석 목사
5부 14:35 오수환 목사
대학청년
주일저녁 16:40 -

대표기도

1부 신동규 장로
2부 원용채 장로
3부 이현재A 장로
4부 권태일 장로
5부 임일규 장로
대학청년
주일저녁 -

헌금기도

1부 김대식 안수집사
2부 백형주 안수집사
3부 강철규 안수집사
4부 김현동 안수집사
5부 이은성 성도
대학청년
주일저녁 문수영 성도

금요성령대망회

2024. 12. 20.

(2024 성탄축하예배 및 베들레헴 찬양대 50주년 기념 연주회)

사회 / 양승호 목사 20시
기도 안병광 장로
찬양 겹세마네 찬양대
축하메시지 이영훈 목사

토요일예배

2024. 12. 21.

Saturday Worship Service

사회 / 박용 목사 10시 10분
예배로 부르심 요(John) 4:24 사회자 찬송 358장(통400장) 다같이 기도 박규현 장로 성경봉독 대하(2Chr.) 2:1~10 사회자 찬양 가브리엘 찬양대 설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비결 백근배 목사 헌금기도 오세형 안수집사

금주의 찬양

Choir Anthem

구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양	구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양
주일1부	베다니	강내우	거룩한 주	수요1부	베데스다	김호식	기뻐하라 복음의 소식
주일2부	베들레헴	윤의중	깨끗하게 하시리라	수요2부	시온	조현호	주의 영광
주일3부	예루살렘	여자경	예수 거룩한 이름	수요3부	호산나	윤규섭	인양
주일4부	나사렛	이종진	기뻐하라 복음의 소식	금요성령대망회	겹세마네	송성철	-
5부 대학청년	임마누엘	이수범	-	토요일예배	가브리엘	이용중	사랑의 왕 메들리
주일저녁	에벤에셀	김영준	-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Ⅲ)

(Jesus Who Came to Us (Ⅲ))

사(Isa.) 11:1~2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자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과, 메시아이신 주님 위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에 대한 예고의 기록입니다.

1. 지혜와 총명이 임하신 예수님(Jesus who is filled with wisdom and understanding)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눅 1:35), 침례를 받으실 때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으며(마 3:16),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눅 4:1). 주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보여주시신 모든 일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 '야훼의 영'이며 '지혜와 총명의 영'이었습니다(사 11:2). 이러한 성령의 임하심이 늘 함께했기에 예수님은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갖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2.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Jesus who came with the Spirit of counsel and of power)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사 11:2)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계획을 수립하셨고 이를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포로 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해방을 얻게 되었던 일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눅 4:18~19).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전파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3.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

(Jesus who came with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fear of the LORD)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던 우리 예수님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사 11:3).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임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도 와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평생의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소식

News Board

◆ 성탄축하예배-일시: 12월 25일(수) 성탄1부~성탄저녁예배 / 장소: 대성전

예 배

- 12월 25일(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 12월 셋째주 새벽예배-일시: 12월 16일(월)~21일(토) 새벽 4시 45분(토요일은 새벽 5시 45분) / 장소: 대성전
설교: 김민철A 목사(16일~18일), 권성민 목사(19일~21일)
- 여선교회 정기월례회-일시: 12월 15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베들레헴성전 / 설교: 윤성호 목사
- 장로회 2024년 장로부부 송년예배
일시: 12월 16일(월) 오후 5시 30분 / 장소: 호텔롯데 서울(소공동) / 설교: 이영훈 목사
- 안수집사회 2024년 송년예배-일시: 12월 22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안수집사회실 / 설교: 양승호 목사

모 집

- 교무국 찬양특별교구 호산나 찬양대(수요3부) 대원 모집-문의 ☎ 02-6181-6702, 6704
자격: 본 교회 1년 이상 출석, 물성령 침례 받은 성도 / 모집파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 국제사역국 목회동역팀 대성전 중국어 동시통역자 모집-문의 ☎ 02-6181-6161
자격: 설교통역 유경험자 및 성령침례 받은 성도,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성령대망회 통역 가능한 성도
- 세계교회성장연구원 제1기 절대공정 전도훈련학교-문의 ☎ 02-2036-7192
일시: 12월 14일(토)~2월 15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세계선교센터 1층 102호

안 내

-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베들레헴성전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새가족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등록 및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권사회 제8회 사랑의 쌀 나눔-일시: 12월 18일(수) 예배 직후 / 장소: 베다니홀 / 강사: 이영훈 목사
- 복지사업국 상담소 제44차 정기총회 및 송년예배
일시: 12월 15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세미나실(제1교육관 10층) / 강사: 양승호 목사
- 교무국 찬양특별교구 2024 성탄축하예배 및 베들레헴 찬양대 50주년 기념 연주회
일시: 12월 20일(금) 오후 8시 / 장소: 대성전
- 재정국 국제청홀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 교회기부금 자동등록 신청-문의 ☎ 02-6181-5730
일자: 12월 22일(주일)까지 / 접수: 교회 홈페이지(www.fgtv.com) 휴대폰 실명확인 인증 필수
- 국피플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함께하는 2024년 연말모금 캠페인
일자: 12월 22일(주일)까지 매 주일 / 장소: 베다니 광장, 십자가밭 앞 등
- 2025년 교회 탁상달력이 서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매하셔서 선물용으로 또는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교회 내 각종 판매행위(다단계 등) 또는 성도 간 투자권유 및 금전거래를 금지합니다.

▣ 다음 주간(12/22, 12/25, 12/27, 12/28 대표기도(장로))

주일예배(12/22)						금요성령대망회(12/27)	윤경식
1부	2부	3부	4부	5부 대학청년	주일저녁		
강원도	이재갑	이정용	정해영	이수국	이경우	토요일예배(12/28)	문무성
성탄예배(12/25)							
장일봉	전용선	이동수B	김천수B	이동근	최문엽		

- ☐ 교회 대표전화(주간) ☎ 02-6181-9191, (야간) ☎ 02-6181-9000~3
- ☐ 의례팀(장례 상담 및 조화 신청 시간 07:00~20:00) ☎ 02-6181-6533

사랑을 주는 사람

헤르만 헤세의 단편 「아우구스투스」의 주인공 아우구스투스는 미망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신비한 노인이 그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위한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깊은 고민 끝에 어머니는 “제 아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빕니다. 소원이 이루어져 아우구스투스는 만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는 법을 모르던 그는 점차 거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끝없는 사랑을 받으며 쾌락을 좇다가 그는 내면의 공허함과 삶의 회의를 느끼며 결국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때, 과거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준 노인이 다시 나타나 그에게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 소원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만 하던 과거와 달리 많은 이의 비난을 받으며 외로움과 역경을 겪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사랑을 받기만 하던 때보다 사랑을 주는 현재의 삶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을 주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는 사랑을 베푸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리는 뜻깊은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